Entertainment p/18

이민혁 '아육대' 출산★' 예약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3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수상한 '그녀' 심상찮은 돌풍

빚공해도 오늘부터 배상 가능

NEWS p/03

보조금 전쟁 설연휴도 없었다

ECONOMY p/08

'겨울왕국' 544만 명이 봤다 ▶▶16

설연휴 안방 김수현 천하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3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2연패 홍명보 "내탓이오"

美 주지사까지 협박하는 일본

동해병기 법안 통과 막으려 버지니아 주지사에 편지
대형로펌 동원 로비도…정부, 日역사왜곡 강공 선회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 멸망한다.'

인류 역사가 주는 엄중한 교훈도 모르는 듯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융직염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주미 일본대사관이 직접 '마피아식' 협박에 조직적 로비까지 벌이는가 하면 일본 보수 언론들은 프랑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시회를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전쟁을 뉘우치지 않는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부각시키는 강공 전략으로 역사의 무서운 교훈을 일본 스스로 깨우치게 느끼게 할 계획이다.

◆동해 병기 막으려 대형 로펌 계약

2일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공개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 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간 석 달간 7만5000달러(약 8000만원)의 용역계약서 문건을 통해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주미 일본대사관의 동해병기법 저지 로비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이 서명한 이 문건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향과 자연망식 로비 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집중 로비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로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협박성 서한을 보내고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면담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왜곡된 역사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사에 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은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본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1일 산케이신문은 '2014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실상을 알리는 만화는 전시되고 이에 맞선 일본 측 만화가 철거당한 것에 대해 "문화 행사에야 하는데 주최 측이 한국을 우대하는 정치색을 반영한 것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모미이 가쓰토 NHK 신임 회장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는 망언을 해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역사 프레임' 전략으로 맞서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우리 정부도 일본의 역사 인식 전체를 문제 삼는 '역사 프레임' 전략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제1차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토론에서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달 초엔 외교부가 만든 독도 동영상 영어판을 공개하고 중국 등 일제 피해국들이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외교 문제 전문가는 "평화를 들먹이면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일본에 반성만 요구하는 건 더 이상 무리"라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설연휴 마지막 날 해운대 … 오늘부터 다시 추워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부산지역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찬 겨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귀경길 4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3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설날 특집호 배포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에서 메트로신문 배포원들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설날 특집호'를 나눠주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차례상 물리자 "우리 갈라서"

설연휴 직후 이혼소송 급증 명절 스트레스에 14.5%↑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 9~11일) 다음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2009년 이후 5년째 반복됐다.

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036건으로 전월 대비 23.5% 늘었다. 2010년 4223건으로 28.0%, 2011년 4229건으로 37.5%, 2012년 3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설 연휴 다음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457건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로 5년 평균치는 16.7%였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면서 갈등이 표출된다"며 "상담 건수도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kim@

내일 입춘 봄의 길목에 들어선다는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양반가 솟을대문에 권속촌 어르신들이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이라는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 실종 日공무원 변사체로

일본 기타큐슈 앞바다서

업무차 한국에 왔다가 행방불명된 일본 내각부 소속 공무원이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은 기타큐슈에 있는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발표를 인용, 지난달 20일 인근 바다에서 남자 시신 1구를 인양했으며 그 신원이 30세 내각부 직원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내각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경제 관련 회의 참석차 미국에서 서울로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수사 관계자는 시신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으며, 이 남성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출국한 기록은 없고 일본에 귀국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남성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렸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

安신당 "창당때 시·도당 최소 7곳 발족"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규모를 300명 안팎으로 잡고 명단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 의원 측은 2일 "법적 요건인 200명은 크게 넘기지 않고 빨리 하자고 해서 창준위 결성 일정을 앞당긴 만큼 300명 안팎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각 시·도 조직에서 상징적 인물을 평균 10명가량 선정하고 서울에서 나머지 인원을 선정해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3월 말 창당까지 17개 시·도당을 모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7곳을 먼저 발족하고 정식 창당 이후 나머지 시·도당을 순차적으로 창당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박 대통령 둘째조카 얻어

박근혜 대통령이 갑오년 설에 둘째 조카를 얻었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

출산은 자연분만으로 이뤄졌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2005년 9월 지만씨와 서 변호사 사이에서 태어난 첫 조카 세현(9)군에 이어 9년 만에 둘째 조카를 갖게 됐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맵 가족에게도 무료 배포

서울시는 2일 장애인 가족 맞춤형 종합 가이드북인 '장애인 복지맵'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맵은 최근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주거·안전·일자리·소통·문화 등 연령별 자립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리고자 추진됐다.

장애인 복지맵은 ▲생애주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 ▲사지구별 지원 ▲한눈에 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표 ▲가구별 ▲소득 수준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 복지맵은 서울시와 자치구·장애인복지관·병원·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내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새누리·민주·安신당 대결

'3자 구도 레이스' 스타트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 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역시 3월까지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반적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서울·경기·인천 등 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름띠 닻에 한복 대신 방제복 2일 전남 여수시 신덕마을에서 시청과 해경 직원, 군인, 주민 등이 해안에 떠밀려온 기름띠를 제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근 신덕마을이 기름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개회…'5대 쟁점' 충돌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격 가동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초연금 수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 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여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김민준기자

해산하는 부실 사립대, 장학재단 등 전환 가능

부실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요양원·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 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 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 닫는 것을 꺼려왔다.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 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다예기자 ydh@

남산 층수 규제 풀린다

서울 최고고도지구 10곳 4월부터 높이만 관리 – 3개 층 상향 가능해져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해온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4월부터 폐지해 높이로만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묶였던 낡은 공동주택 단지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 서울시 내 최고고도지구 10곳(약 63㎢)은 4월부터 높이로만 관리된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해 왔고, 지난달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옥상을 피난처, 뒷탑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는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기준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높이규제 개선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3층의 층수 상향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새끼줄에 매단 새해 소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은 한 가족이 소원지를 적어 새끼줄에 매달고 있다. /뉴시스

방역 한숨 – "조상님 죄송합니다" 설날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직원들이 합동차례를 지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직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과학원을 폐쇄하고 원내 생활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참기 힘든 '빛공해' 오늘부터 배상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공해로 생활에 방해가 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이 3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수인한도는 빛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레어 지수'로 판단하는데 기준 지수는 36이다.

또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진다.

행정처분 현황, 조명기구 특성·시간대 등 빛공해 피해 특성 등 9개 항목도 배상금 산정에 반영된다.

연휘도계 등 장비를 갖춘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측정한 결과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은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다혜기자

에너지음료·캔커피 94% 학교매점 퇴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93.9%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컨슈머리서치가 2일 롯데칠성·코카콜라·해태음료·동원F&B·동서식품·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으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캔커피 10개 제품 전체는 퇴출 대상으로 ㎖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던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다혜기자

AI 설 연휴엔 '주춤'…철새도 쉬었나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최대 고비였던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방역 당국이 한숨을 돌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내내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 U자형 소독시설 250개를 설치하고 주요 터미널 304곳과 기차역 220곳, 공공기관 1260곳에 발판소독조 2637개를 설치해 민족 대이동에 따른 AI 확산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 주요 철새 도래지 37곳 주변에 77개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했다.

연휴 이틀째까지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AI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연휴 사흘째인 1일 부산과 충북 진천에서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데 이어 2일에도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보존용 농장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AI의 잠복기가 7~21일인 점을 고려할 때 1~2일 AI 감염의심 증상이 나타난 농장은 설 연휴 전 이미 AI에 오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지난달 부산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잇따라 음성으로 판정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일 "오늘까지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총 37곳이며 예방적 살처분 농장을 포함해 106개 농가의 닭·오리 259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통해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illegible]@

경희사이버대 발전기금 모금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가 2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세무회계학과에 이어 일본학과 재학생 등은 동이 모금 활동을 펼쳐 총 274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학교와 학과의 공동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가속도

서울시 강동구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이 지역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고덕시영, 고덕2·3단지 등도 재건축 사업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주말농장 회원 7일까지 모집

서울시 금천구는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22-2번지 일대에 조성한 주말농장 회원을 7일까지 모집한다.

본인 부담금은 연간 5만원이며 분양자에게는 씨앗·모종, 유기질 비료, 유기농 방제제로 원활 방제 등을 지원한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로 1세대당 2구획(1구획당 약 5평)까지 신청 가능하다.

성평등기금 12일까지 접수

서울시 관악구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2일까지 '2014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여성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여성 관련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고 결과는 3월에 발표된다.

지원 규모는 2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4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illegible]

호찌민 베트남 공산당 결성

베트남 공산당의 아버지 호찌민이 1930년 2월 3일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했다. 이로써 베트남 지역에서 따로 활동하던 3개 공산당이 하나로 통합되어 홍콩에 있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제 하에 들어간 것이다. 젊은 시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를 떠돌며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독립에 헌신했던 호찌민은 평생 [illegible] 적이 없었고 자산을 [illegible] 없었다. 그는 평생 동안 조국과 더불어 독신으로 살았고 죽었을 때 남긴 것은 옷 한 벌과 신 한 켤레뿐인 청렴한 사람이었다.

한국인 53% "노년은 내 책임"

다른 나라는 "정부 책임"

한국인 2명 중 1명은 노년기 경제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21개국 2만 2425명을 설문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53%가 노년기 생활을 노인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의 경제능력과 관련 50%가 넘는 응답자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러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들 국가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응답은 10% 안팎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가족, 개인 순으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개인에 이어 정부(33%), 가족(10%) 순이었다.

고령화에 대한 걱정도 컸다. 자국에서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일본인의 87%가 '그렇다'고 답해 1위에 올랐고, 한국인이 79%로 2위였다. 노년기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43%가 긍정적으로 답해 21개국 중 11위로 중간 수준이었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조선미기자

中 '하이브리드 쌀 대부' 노벨평화상 후보 부상

중국의 벼 육종학자 위안룽핑(84)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노르웨이 언론을 인용해 2일 전했다.

'하이브리드 쌀의 대부'로 불리는 위안룽핑은 13억 중국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70년대 이전 중국의 평균 쌀 생산량은 헥타르(ha)당 4.5t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로 교잡 품종인 하이브리드 쌀이 보급되면서 ha당 수확량이 7.1t으로 증가했다. 이 품종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세계 20여 개국에 전파돼 각국의 식량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미기자

중·일 국제회의 정면충돌

中 "전쟁 범죄 부정하는 역사교육은 실패한 것" 비난에 日 "군비 확장 마라" 맞불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갈등 국면에 접어든 중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푸잉 주임은 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와 전쟁 범죄의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는 제 2차세계대전의 학살을 부정하려는 이들이 없다. 일본의 역사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며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제2차세계대전과 식민 지배에 대해 확실히 반성하는 마음을 표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곳"이라고 중국의 군비 확장을 비판했다. 더불어 '해양'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협조해달라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겨냥한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를 견제했다.

한편 중국이 장병들에게 춘제(중국의 설)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2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전쟁은 원정된 법칙이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나치독일의 소련 습격이 이 점을 잘 설명한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태국 혼돈 속 '반쪽 총선'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투표소에서 우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이 신분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태국은 반정부 시위대의 선거 반대와 야당의 불참으로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이날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375개 선거구 중 42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배포 무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AFP 연합뉴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건강을 지켜 대한민국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스케일링, 노인틀니 건강보험 혜택 확대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건강서비스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께 찾아갑니다
- 가벼운 치매 등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등 나눔경영 실천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market index <3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41.15 (+24.22)	515.29 (+6.90)	2.82 (+0.01)	1072.00 (-6.00)

뉴스 & 뉴스

IC칩 없는 현금카드 못쓴다

이번주부터 집적회로(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위·변조 사고 방지를 위해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에 따라 이처럼 바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MS카드(신용+체크)를 통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는 내년 1월부터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처 전환하지 못한 소비자는 영업점에서 무료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정기자

전국 전세값 17개월째 상승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17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68.1%를 기록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49% 전년동월 대비 5.11% 올랐다. 방학철 학군 수요에 봄 이사 시즌과 결혼 시즌이 겹치면서 수도권이 0.84% 뛰었고, 지방도 0.36% 상승했다. 이 같은 오름세에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 가격 기준으로 62.1%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5대광역시와 지방에서 각각 73.5%, 72.7%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서울은 65.4%, 64.3%를 기록했다. /박선옥기자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7	27	33	40	44	2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341,848,35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8,236,373
3등	5개 숫자 일치	1,347,238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용락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31~3
부산광고문의 (051)753-2800
독자센터 (02)721-9881
2005년 1월 31일 등록 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018

장업 힘든 한국… 뉴질랜드의 30배 비용 필요

우리나라 창업 절차 및 시간은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 순위는 전세 189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1~5위 순이었다.

창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창업비용의 경우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선희기자

퇴색한 금빛 찾아줄 인도·중국

금융가 사람들

■IBK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

최대 금 수요국 수입제한 완화 전망·춘절 호재도

한때 반짝반짝 잘나가던 금이 다시 전성기의 영광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영교(사진)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금융시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이슈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금 가격이 원자재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금값 급락의 원인으로 투기 수요 급감을 꼽을 수 있다"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두고 격론이 오가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극대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금이 확고한 '안전 자산'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 가격은 상승하거나 유지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 가격은 원자재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금값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값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수급'을 꼽았다.

그는 "금은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최근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중국 등 이머징 국가 리스크와 함께 세계 최대 금 수요국인 인도의 수요 증가 전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도 정부가 금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빠르게 감소해 더 이상 인도인의 금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춘절 효자도 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윤 연구원은 "중국인들이 춘제 쇼핑 기간에 구매하는 제품 중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금을 비롯한 귀금속"이라며 "대표적 사치품인 귀금속 소비 증가는 향후 가격 방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옥기자 ...@metroseoul.co.kr

롯데카드 설연휴에도 재발급·해지 업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카드 재발급 및 해지를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르면 7월 독립·출범

동양·카드 정보유출 여파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빠르면 오는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 출범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라고 금융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부실 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고 안정적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금감원에 소속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의 역할을,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각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굳건해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금소원 출범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늘(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소원 출범과 관련된 입법 문제가 논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소원 출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분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될 금소원의 업무 비중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 7, 금소원 3의 비중에서 5대5까지 금소원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업무 인력 900명 선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민기자

KB·NH·롯데카드 3개월간 영업정지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금융 당국은 통지 후 10일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늦어도 17일부터 영업정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정지된다. 그러나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들 3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기관 조치와 인적 조치를 나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임직원의 직임 관계가 소명되면 CEO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김선옥기자

차 팔고 SK하이닉스 샀다

1월 코스피 개별 종목 주가, 실적·외국인 수급 따라 희비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흐름과 외국인 수급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이 개별 종목의 목표 주가를 대거 조정한 가운데,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도 기업 실적에 따라 개별 종목을 많이 사들이거나 팔아치웠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510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 업종의 주요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거셌다.

현대차를 2725억원어치 팔아치웠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2463억원, 2152억원 순매도했다.

최근 증권사 4곳 이상이 올해 자동차 업종의 실적 둔화 우려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수급과 증권가 목표가 산정이 일치했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증권사 9곳 이상이 목표가를 올려 잡은 SK하이닉스는 1월 외국인 순매수 1위(2501억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강세를 보였다.

한편 증권사의 호평에도 불구 외국인 '팔자'가 두드러지면서 주가가 휘청인 종목도 일부 있었다.

GS홈쇼핑은 4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증권사 7곳 이상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으나 주가는 급락했다.

실적 발표 직후인 지난 28일 GS홈쇼핑 주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중 9% 넘게 빠졌다가 전 거래일보다 2만원(약 7%)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1년 정도의 기간을 전망하고 목표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와 주가 향방은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물에 도달하면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외국인이 많이 팔아치운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도 나란히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신한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에 대해 "D램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올해 영업이익도 4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해 ▲주가 하락을 야기한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가격 매력 부각 ▲해외 시장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호재로 꼽았다.

/김현정기자 hjk@metroseoul.co.kr

한겨울에 나온 성주 참외 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참외 따고 신선도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서 수확한 이른철 따고 과일인 성주 꿀참 참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서울역점과 잠실점 등 40개 점포에서 100g당 1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모델하우스=감성하우스

분양 정보 전달 목적 넘어 최근 문화행사장 변신중

과거 분양 관련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델하우스가 최근 들어 각종 강좌나 음악회, 패션쇼, 사진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건설사별 설계 및 시공력 등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상품의 스펙이 아닌 문화·감성을 내세워 고객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산중공업은 서울 서울숲 인근에서 '트리마제' 분양을 앞두고 분양홍보관 'D라운지'에서 고객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링 클래스'를 선보였다.

아트·뷰티·와인·패션·데커레이션&플라워 등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며 홍보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 중인 '역삼 푸르지오 시티'의 견본주택과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콘퍼런스 공간과 문화이벤트 공간 '씨어터 갤러리' 'Lz클럽'을 마련했다. 견본주택 관람은 물론 전시회 및 문화강좌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건설사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이벤트도 활발하다.

GS건설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를 위해 창간된 잡지 '가가자이(生生Xi)' 독자선물 이벤트를 열었다. 잡지 독자, 홈페이지 회원 등이 관람하고 싶은 전시회명과 신청 이유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 관람권을 증정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입주민들을 위한 '오렌지 데이' 문화이벤트를 상시로 운영한다. 입주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 각종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다.

/박선옥기자

신학기 가방 사세요 2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어린이 모델이 신학기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3월 5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학생용 가방 100여 종을 최대 50%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연합뉴스

마의 일주일…세계 시총 2053조원 증발

최근 세계 증시에서 불과 일주일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7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우려 등 신흥국 시장에 촉발된 불안심리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 증시 시총은 지난달 31일 현재 60조1500억 달러로 같은 달 22일에 비해 1조9150억 달러(약 2053조원, 3.1%)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세계은행 집계 기준으로 한국 GDP(1조1295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 증시 시총(1조1346억 달러, 지난달 31일 현재) 대비로도 약 1.7배에 이른다.

세계 증시는 지난해 말부터 선진국 중심으로 강세장을 나타내며 지난 1일에는 시총 62조128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11.7% 폭락하고 미국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결정하면서 꺾였다.

이 기간 신흥국 주가를 나타내는 MSCI 신흥국 지수는 4.1% 하락했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4개국 주가를 보여주는 MSCI 브릭스 지수는 4.9% 떨어졌다.

선진국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MSCI 선진국 지수는 3.8% 하락했고 미국 주요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각각 4.1%, 3.4% 떨어졌다. 유럽 증시도 4% 넘는 낙폭을 보였다.

/윤은영기자

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 기업 61% "정부압력 체감"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현장 전반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 또는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해 61.7%의 기업이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고 답했다.

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 최근 논의되는 각종 법적 규제에 큰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 ▲전일제 전환 청구권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기회 등의 순으로 규제 부담을 지적했다.

이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전환청구권'을,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예금기자 koqueen

설 연휴도 반납한 보조금 전쟁

이통 3사, 방통위 경고 아랑곳 단통법 통과 전 가입자 유치 위해 불법영업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이 설 연휴에도 지속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설 대목을 틈타 '설맞이 행사', '설 특가 세일', '설맞이 선착순 휴대전화 무료' 등의 팻플릿을 걸고 불법 보조금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온라인 단말기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영업이 강행됐다면 최근에는 설 명절을 앞세워 특별 보조금 명목으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70만~100만원 선의 보조금이 버젓이 지급되고 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영업에 나선 신림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설맞이 행사'를 내세우며 LG전자 'G2'에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LG G2는 출고가 99만9900원이지만 이 대리점에서는 69요금제 3개월 이용 시 할부원가 29만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점의 영업직원은 선착순 10명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원에 이 같은 팸플릿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미뤄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신림동의 또 다른 판매점에서도 출고가 95만48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가 69요금제 3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할부원금 23만원에, 출고가 99만9000원의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 역시 할부원금 33만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60만~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30만~40만원 이상의 초과 보조금이 지급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 3사에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보란 듯이 새해 벽두부터 보조금 살포를 통해 경쟁사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됐고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과징금 제재 한 달 만에 이통사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시장점유율 이행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이통사가 시장영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한 통신사 대리점주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은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1403@metroseoul.co.kr

모바일T월드 국내 최초 '앱 접근성 인증'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T월드'가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앱 접근성 인증마크는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앱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SK텔레콤 제공

헬로모바일 새 요금제 출시

알뜰폰(MVNO) 업계 1위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기본료 0원의 '완전할인 요금제'를 3일 출시한다.

완전할인 요금제는 하루에 5분 이하로 음성통화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음성통화를 150분 이상 사용 시 기본요금 1만5000원이 100% 할인되며 150분 미만으로 통화할 경우 기본료에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음성통화는 초당 1.8원, 문자는 건당 20원, 데이터는 1메가바이트(MB)당 51.2원이며 10MB의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이용 가능한 단말기는 삼성 '미니멀 폴더', '노리F2', LG '와인샤베트' 등 피처폰과 팬택 '베가레이서', LG '옵티머스', '옵티머스 L9' 등 스마트폰이 있다. /김지은기자 [illegible]

스마트폰 이젠 '국민 필수품'

10명 중 6명 TV·PC와 함께 사용 이용시간 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이 TV와 컴퓨터처럼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안클릭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 7~69세 우리나라 국민 4278만6213명 중 58.1%인 2486만3504명이 TV와 PC, 모바일 기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닐슨코리안클릭은 국내의 PC 인터넷 사용 인구와 스마트폰 사용자를 각각 3290만 명과 2680만 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PC 사용자 대비 81.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들 기기 이용 패턴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PC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으로 2년 전에 비해 0.5시간이 줄었다.

반면 모바일 기기 이용 시간은 5.7시간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TV 이용 시간은 평균 3.4시간으로 2년 전의 3.6시간과 비슷한 추세다.

/서성훈기자 [illegible]

토요타 '르망 24시간' 첫 우승 도전

국내에서도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토요타가 2014년 모터스포츠 상세 활동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렉서스 토요타 레이싱 팀은 전통의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포함한 FIA 세계내구선수권(WEC), 미국의 나스카(NASCAR), 일본의 슈퍼 GT, 슈퍼 포뮬러에 출전을 확정했다. 또한 다카르 랠리에 참전하는 토요타 차체를 지원한다.

2012년 하이브리드 레이싱 머신으로 처음 출전한 이래 지난해 전 레이스에 모두 출전, 2승을 올린 WEC 대회에는 올해도 전 레이스에 출전한다. 특히 올해는 차량 규정 변경에 따라 신형 차량 'TS040 하이브리드' 2대로 시리즈 전 레이스에 참전할 예정이다.

르망 24시간 레이스(6월 14~15일, 프랑스 르망)에서는 첫 우승을 노린다.

일본의 히가시후지 연구소에서 개발된 레이싱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THS-R(TOYOTA Hybrid System-Racing)는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새로운 V8 엔진과 모터 제너레이터를 전후에 탑재한 4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여기서 얻어진 선진 하이브리드 기술은 양산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싱인 NASCAR에는 토요타 캠리로 내셔널 시리즈라 불리는 톱 카테고리에 출전해 최고 영예인 드라이버즈 타이틀을 노린다.

일본 최고의 레이싱 대회인 슈퍼 GT에는 GT500 클래스에 신형 렉서스 RC F, GT300 클래스에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출전한다. /정의혁기자

< 겨울 강자 중소형 SUV 중고차 시세 >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싼타페 CM	1,650	1,850	2,000	2,300	—
	투싼 ix	1,700	1,720	1,800	2,020	2,220
기아	스포티지R	[illegible]	1,840	1,910	2,050	2,170
	쏘렌토R	1,900	1,940	2,190	2,430	2,710
쌍용	코란도C	[illegible]		1,850	1,890	2,030
르노삼성	뉴 QM5	—	—	2,250	2,900	2,450
폭스바겐	티구안	2,400	2,660	3,120	3,420	3,930
지프	랭글러(JK)	2,650	3,110	3,[illegible]00	3,720	4,220
아우디	Q5(8R)	3,680	4,050	4,680	4,540	5,490
벤츠	GLK-클래스	3,650	3,700	3,830	4,450	5,2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유럽보다 북미스타일

엄의택의 차차차

■ 제네시스 G380

▲한 줄 평가: 핸들링과 정숙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연비 향상을 위해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다. ▲평점: ★★★★ (별 다섯개 만점)

저속서 중속까지 안정 | 반박자 느린 가속 아쉬워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가 후륜 대형 세단 시장에 도전한 최초의 독자 모델이다. 2008년 데뷔해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었고 2009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현대차는 제네시스가 BMW 5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경쟁하기를 바랐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1세대 제네시스는 3만5200달러부터 시작하고 3.8 모델에 옵션을 전부 더하면 4만4820달러가 된다. 반면 벤츠 E350은 5만1900달러부터 시작하니 1만60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차이라면 경쟁 모델로 보기 힘들다.

현대차는 2세대 제네시스 역시 경쟁 모델로 5시리즈와 E클래스를 지목했다. 물론 신형은 아직 북미 시장에 데뷔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시장에 해당되는 얘기다.

신형 제네시스의 앞모습은 구형보다 촘촘해졌고 전체적으로 날렵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독자적인 색채는 약하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우디의 패밀리룩을 떠올리게 하고 헤드램프는 BMW를 연상케 한다. 또한 뒤 측면 자체는 아우디 A7과 상당히 유사하고 테일램프는 렉서스 GS의 것을 닮았다.

◆ BMW 흔적 보이는 인테리어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와 마무리는 매우 좋아졌다. 그러나 대시보드, 센터콘솔박스 등 곳곳에서 BMW의 흔적이 보인다.

파워트레인은 3.3ℓ 또는 3.8ℓ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된다. 이 가운데 시승차는 3.8 모델이다. 새로 적용된 4륜구동 모델이 궁금했으나 시승차는 후륜구동이 배정됐다.

저속부터 중속까지는 구형보다 한층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요철이 있는 노면을 지날 때 새시의 안정감이 돋보인다. 구형 제네시스는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체 하부가 약간 뜨는 현상이 있었는데 신형 제네시스는 이 부분이 좋아졌지만 이질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서스펜션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엔진 소음은 구형보다 확실히 줄었고, 경쟁 차종 중에서도 매우 조용한 편이다.

◆ 과급기 적극 활용했더라면

핸들링과 승차감, 정숙성이 대폭 향상된 반면에 엔진은 기대에 못 미친다. 구형 제네시스와 같은 엔진을 개선한 수준인데 특히 급가속 때의 반응이 약간 늦다. 구형보다 대폭 무거워진 차체가 늦은 가속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슈퍼차저나 터보차저 등의 과급기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아우디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독일 브랜드들은 과급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운사이징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3.8 2륜구동의 복합연비는 9.0km/ℓ인데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6대4의 비율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7.0~7.2km/ℓ를 기록했다. 배기량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지만 독일 디젤 세단에 비하면 열세다.

신형 제네시스의 주 무대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북미 시장이 될 것이다. 현대차는 유럽 무대에도 선보인다고 하는데, 현재의 라인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유럽을 공략할 때는 디젤 모델이,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세할 경우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제네시스의 트림은 3.3 모던(4660만원)을 시작으로 3.8 파이니스트 에디션(6960만원)까지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시승차인 3.8 프레스티지(6130만원)는 풀옵션을 갖추면 6930만원이 된다. 이 가격대는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 인기 수입차가 포진돼 있어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일상적인 운전을 즐기기에는 3.3 프리미엄(5260만원)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 것이다.

/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쏘울 전기차 6월 개막 美시카고 모터쇼서 첫선

기아차 쏘울이 드디어 전기차(EV)로 선보인다. 데뷔 무대는 6일부터 열리는 미국 시카고 모터쇼다.

최근 오토모티브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아차는 쏘울 EV를 시카고 모터쇼에 소개하고 상반기부터 본격 판매할 전망이다. 이 차는 27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최고 출력 109마력의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최대토크는 29.0kg·m에 이른다.

쏘울 EV는 한 번 충전으로 193km(미국 기준)를 달릴 수 있다. 이미 선보인 스파크 EV나 르노삼성 SM3 Z.E.에 비해 긴 거리여서 한국에 선보일 경우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카고 모터쇼에는 쏘울 EV뿐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닛산은 신형 프런티어를 공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은 오프로드 레이싱 모델을 공개하고 볼보는 신형 S60과 V60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의혁기자

하나투어리스트
자유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호텔
호텔팀장
"고객이 원하는 호텔은 어떤 호텔이든, 믿을 수 있는 최저가격에 제공하라~"
마케팅팀장
"고객들에게 최저가를 제대로 홍보하라! 최저가 아니면 300%를 보상한다"
최저가 300%
보상제실시
항공팀장
"최고의 항공과 최저가격을 찾아라!"
MISSION
3인에게 주어진 사상최대의 미션,
자유여행 최저가를 확보하라!
기간 : 2013년 11월 11일~2014년 2월 28일
자유여행 어디서 예약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구요?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 + 호텔에서
1 손쉽게 한 번 검색으로
2 항공과 호텔에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까지 한꺼번에!
3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세요!
최저가 보상제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발생시, 차액의 300%마일리지보상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합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 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박태준이 그리운 이유

뉴스룸에서
어충건
<편집위원>

1990년대만 해도 신문과 방송들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포항제철의 합동차례 모습을 빼놓지않고 보도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제철소라는 곳이 24시간 조업 체제라 명절에도 직원들은 고향에 못 가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전방을 지키는 군장병에 비견될 만큼 애잔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제철소라는 곳은 그런 곳이다.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사에 제철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포항제철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건설 과정에 작고한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의 '제철보국'과 '우향우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에 실패하면 모두 영일만 바다에 뛰어들자"며 산업의 쌀인 철강재를 만드는 소재산업의 근간이자 기간산업의 자존심이라는 평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제철소들이 요즘 이상하다.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 등 어수선하다. 현대제철은 민망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3일 결국 숨졌다. 당진 제철소는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안전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특별점검 때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관리 불감증이 발견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철소가 사고공장으로 전락한 꼴이다.

포스코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 세운 제철소가 문을 열자마자 조업을 중단하다 재가동하는 등 포스코다운 지략과 일사불란함을 잃은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파이넥스 공장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는 계열 포스코건설 여직원 대형 횡령사고까지 겹쳤다.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권오준 신임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현대제철은 잦은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영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두 기둥인 제철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선전과 역사성 회복을 기원한다.

경제팀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옐로카드'를 꺼냈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언을 한 바 있다.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줬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가운데 19%가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 부총리를 겨냥해 박 대통령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 부총리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교체를 건의할 정도였다. 지난해 7월 교체설이 있을 때 박 대통령은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옹호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부 업종이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려왔다. 특히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전세대란 속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저성장의 그늘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분기에는 1%를 밑도는 0.9%에 그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됐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 경제팀의 핵심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을 놓고 증세 논란이 일자 '거위털 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산 적이 있다. 납세자를 거위에 비교하면서 털을 뽑아도 무방하다는 증세론을 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카드 사태에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동양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경제팀 핵심 멤버들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따라서 경제팀은 조속히 교체해야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루빨리 새로운 진용을 짜 국정을 쇄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포토프리즘 — 고향의 정 듬뿍 안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역에서 고향에 다녀온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긴 연휴를 뒤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얼굴이 이채롭다. /손진영기자 metroseoul.co.kr

도로명주소 한 달이 남긴 것

기자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100년 넘게 사용한 지번 방식의 법정 주소가 올 들어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하지만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래 2년간의 병행 사용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지역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지만 이보다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데서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동(洞)'과 도로명주소의 '대로', '로', '길' 등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읍·면·동 체계의 행정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적 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의 중개업소나 건설주택에서는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세밀한 제도 개선 없이 국민들의 사용만 강요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평(坪)'에서 ㎡로 단순히 표기법만 바꿔 밀어붙였다가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법정계량단위' 사례를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낙타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별과 달과 해와/모래만 보고 살다가/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어리석은 사람 하나/등에 업고 오겠노라고/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길동무 되어서" 신경림의 시 '낙타'의 마무리 대목이다.

그는 세상을 하직하는 날 낙타를 타고 떠나겠다는 19세기 탐험가 같은 유언을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노시인의 문학적 발언이지 죽기 전 중앙아시아 어디쯤에서 괜찮은 낙타 한 마리 미리 알아보겠다는 뜻은 아니다. 살아생전 힘차게 달리던 길을 어느 새벽 자기도 모르게 잃고 흰 상여에 떠 메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제 힘으로 이 범상치 않은 등의 곡선을 가진 이국의 동물 위에 올라타겠단다.

이만하면 삶의 마지막 여정이 그리 수척하지 않고 홀로가 아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낙타가 되어 가장 어리석은 누군가의 길동무 되어 가겠노라 밝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낙타일까?

대상(隊商) 캐러밴은 그림자 하나 없는 모래 벌판의 완벽한 풍경화를 만들어주는 목이 길지만 슬프지 않고 눈빛 너그러운 이 짐승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인간이 낙타에서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로 가는 초극(超克)의 과정을 설파한다. 자기 짐도 아닌 것을 강제로 지고 가는 낙타는 노예의 단계이고, 이를 극복해야 자유의 주인인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자는 자유를 위한 싸움의 긴장에서 영원히 풀려날 수 없다. 정신의 평화는 아직 획득되지 못한 것이다. 어린아이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

흥미롭게도 '짜라투스트라'는 '낙타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창시자가 된 조로아스터교는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라는 하늘의 뜻을 선포한 종교다. 그 이름대로 고집 센 야생 낙타를 길들여 사막에서 인간의 길동무가 되어가도록 하는 그 오랜 시간은 낙타의 인내와 수고, 그리고 희생과 수행이 마주친 순간이었을 것이다. 니체가 본 것과는 다르게 노예가 아니라 때로 절망스럽고 처절한 시간을 인간과 함께 해준 존재로서 말이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 타클라마칸 너머 고비사막 언저리를 잠시나마 밟게 해준 낙타가 떠오른다. 말의 해라고 하는데, 난데없이 낙타를 떠올린 까닭은 달리 있지 않다. 혹여 인생의 사막을 만나도 마음속에 낙타 한 마리 함께하면 갈 길이 막막하다고 쉽게 지치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다.

조조강직 관절 방치땐 변형

여성 유병률 높은 류머티즘관절염 보험급여 기준 완화 ·조기치료를

풍요롭고 즐거운 설 연휴였지만 주부들은 명절이 괴롭다. 특히 선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손과 무릎, 허리 등 관절에 무리가 가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런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부들의 관절 통증이 명절 후까지 지속되면 류머티즘관절염과 같은 관절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남성보다 4배 더 발병

관절염은 여성들에게 유독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실제로 만 30세 이상 여성의 류머티즘관절염 유병률은 2.5%로 남성(0.7%)보다 약 4배다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역계 이상으로 언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이 생기고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류머티즘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관절이 특히 심하게 뻣뻣해지는 '조조강직'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 이어지며 증상이 왼쪽과 오른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관건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2년 이내 관절 변형이 생기는데 관절 변형이 진행된 후에는 관절을 되돌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류머티즘관절염을 관리해야 하며 관절의 구조적 손상을 예방해 신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통 류머티즘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를 주 치료로 하면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사실 이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은 항염증 약물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염증이 생긴 관절에 주사를 맞거나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스테로이드제제, 관절염의 진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항류머티즘제제(DMARD)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사용돼 관절의 염증과 파괴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등이 대표적인데 기존에는 이런 약물이 조기에 사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조기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완화시켰다. 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신체 28개 관절이 붓거나 압통이 있는지를 측정해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보험급여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균형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을 통한 개인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조기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황재용기자 hoo038@metroseoul.co.kr

JAPAN AIRLINES

JAL 타고 갈 곳 점점 많아진다

일본항공 JAL그룹(이하 JAL)은 다음달 30일부터 2014년 국제선 및 일본 국내선 노선과 편수를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JAL은 도쿄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슬롯 확대에 맞춰 하네다발 런던·파리·싱가포르·방콕행 노선을 낮 시간대에 새롭게 운항할 예정이며 심야 시간대를 활용한 하네다~호치민 노선 개설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JAL은 북미와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나리타~뉴욕 노선을 주 14편으로 확대하고 나리타~모스크바 노선은 주 4회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선인 하네다~야마가타 노선의 복수 운항 실현을 위한 증편이 결정됐으며 지방 노선 중 과거 운휴한 노선 6개의 운항이 재개된다.

한편 JAL은 스카이 스위트 기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최대 10cm를 늘린 좌석인 '스카이와이더'를 장착한 기재의 운항편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라면 먹고 류현진 사인볼 받으세요" 오뚜기는 진라면 광고모델인 류현진 이미지가 삽입된 진라면 스페셜 패키지(10만원)를 오는 6일부터 출시한다. 이를 기념으로 류현진 사인볼을 증정하는 내용의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라면 제공

호텔이야 딸기밭이야?

특급호텔들 봄 앞두고 스트로베리 프로모션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과일인 딸기는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과일 중 하나다. 성큼 다가오는 봄을 먼저 만끽할 수 있는 명품호텔들의 딸기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먼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로비라운지에서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를 총망라한 '아이 러브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주중(월~금요일)에는 딸기 애프터눈 티세트가, 주말(토·일요일)에는 딸기로 만든 25여 종의 딸기 디저트가 무제한 뷔페식으로 준비된다.

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4월 20일까지 매주 주말(금~일요일) 시간을 이용해 딸기 디저트 뷔페를 진행한다. 호텔은 친환경 고급 품종 딸기를 산지에서 직송해 치별화를 꾀했으며 딸기 칵테일 한잔도 무료로 제공한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다.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주말(토~일요일)에 열리는 프로모션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의 2부제로 운영되며 프로모션에서는 30여 개의 딸기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서울 더 라운지는 다음달 31일까지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마련했으며 더 플라자도 4월 30일까지 '리얼 스트로베리 디저트'를 통해 상큼한 봄 기운을 전한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로비라운지&델리에서 딸기 디저트 뷔페 '스트로베리 올킥'을 매주 주말(토~일요일) 운영한다. 딸기로 만든 20여 개의 다양한 메뉴와 딸기 에이드 등이 준비되며 호텔은 주중에도 고객들이 딸기와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딸기 디저트 단품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메뉴로 구성된 '알콩상콩 스트로베리' 딸기 디저트 뷔페를 5월 4일까지 진행하며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는 이달 말일까지 매주 주말(금~일요일) 딸기 디저트와 커피 혹은 차를 즐길 수 있는 '올 어바웃 스트로베리'를 선보인다. /황재용기자

이대의료원, 종합병원 부문 대상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이화여대 의료원이 지난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은 최근 발표된 각종 암 및 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고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주최 측은 의료원이 첨단 장비 도입,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 제2부속병원 개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료원의 꾸준한 병원 혁신 활동과 특성화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올해는 JCI 재인증과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핵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하프갤런 사이즈로 무료 업그레이드

배스킨라빈스 패밀리 데이 오늘 해피포인트 회원 혜택 밸런타인·화이트데이 위한 체리초코·체리치즈맛 출시

배스킨라빈스가 3일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시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패밀리 데이'를 벌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만족 명절인 설 연휴로 인해 기존에 진행해온 1월 31데이 를 2월 3일로 날짜만 변경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5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1만9500원) 구매 시 하프갤런으로 업그레이드해 6가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전국 매장에서 현금처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카드' 소지 고객이라면 누구나 '패밀리 데이'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총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배스킨라빈스는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상큼한 체리가 들어간 신제품 '미스터(Mr.)체리초코'와 '미스(Ms.)체리치즈'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선보였다.

Mr.체리초코는 상큼한 레드 체리가 올려진 감미로운 초콜릿 컵케이크를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초콜릿 컵케이크 아이스크림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초콜릿 케이크와 초콜릿 휘지 리본이 더해져 진한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달콤한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Ms.체리치즈는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아이스크림에 상큼하게 씹히는 레드 체리와 새콤한 체리 리본을 곁들인 제품으로, 화이트데이에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가 특징이다. 크림치즈와 상큼한 과일을 좋아하는 20~30대 여성층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2~3월 두 달간 Mr.체리초코 또는 Ms.체리치즈 구매 시 500원만 추가하면 싱글레귤러를 더블주니어로 사이즈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업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가격은 싱글레귤러 기준 2800원이다.

/정윤 기자 prime@metroseoul.co.kr

유통업계 "명절증후군 잡아라"

주부들 위한 행사 다양

유통업계가 설 명절 기간 지친 주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눈길을 끈다.

아이파크몰에서는 가사 활동에 지친 주부들의 몸을 풀어주기 위한 이색 행사를 준비했다. 2월부터 5일까지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튼튼두리' 매장에서는 뱃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는 승마 운동기구를, '토주요' 매장에서는 뭉친 근육을 주는 안마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리빙관 '메라슈발' 매장에서는 피부 상태를 측정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주고 패션관 '닥터자르트' 매장에서는 손과 얼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패션관 '비디비치' 매장에서는 예약 고객에 한해 무료 메이크업을 해준다.

롯데마트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에서 '레이디 페스티벌'을 벌인다.

이 행사는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을 위한 행사로, 간편대용식 다이어트용품, 화장품 등 100여 개 할인 상품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명절 직후에는 상차림 준비에 지친 이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편 대용식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을 고려해 '간편 대용식 모음전'도 준비했다.

/정민 기자

주방 기름때엔 식초·거실 냄새엔 숯

집안에 남은 설음식 흔적 친환경 청소재료 및 요령

명절에는 튀김, 전, 산적 등 기름진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방에 기름때가 많이 끼고 집 안 곳곳에 음식 냄새가 밴다.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가 명절 후 식초, 김 빠진 맥주, 향초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주방을 청소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기름때는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 끓인 뒤 뿌리면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다. 또 먹다 남은 맥주를 키친타월에 적셔 오염 부분에 덮어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떼어내도 말끔해진다. 맥주 당분이 기름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 빠진 맥주를 개수대 안에 부은 후 5분 정도 두면 싱크대 악취가 사라진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집 안 곳곳에 음식 냄새가 밴다. 이때 아로마 향초를 켜두면 냄새가 천천히 제거된다. 소파나 쿠션에 밴 냄새는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깔끔하게 없어진다.

탈취 기능이 있는 숯이나 원두커피 찌꺼기를 집 안 곳곳에 놓아도 좋다. 레몬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거나 물과 함께 끓이면 주방에 레몬 향이 퍼져 짧은 시간에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냉장고는 식초나 소주를 이용해 안을 닦아내고 전용 탈취제로 미리 관리하면 여러 음식이 섞여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명절 주방은 여러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먼지에 노출된다. 특히 실내 난방 시 곳곳의 기름때가 부패해 세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기름을 쓴 요리를 하고 나서는 바로 물걸레질로 바닥의 기름기를 없애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쉽게 쌓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한다.

/박지원 기자

애교 많고 외로움 잘 타는 남자랍니다

영화 '피끓는 청춘' **이종석**

카사노바 고교생 파격적 연기변신
팬티 입고 댄스·눈곱 낀 채 촬영
더 망가질 걸 그랬나? 하하하
⋮
대세 아닌 그냥 배우가 좋아
다음엔 누아르물 찍고파

"

배우 이종석(25)은 매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꿈 많은 청춘이다. 뜨고 나서 지금의 인기에 취해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먼저 살갑게 말을 걸더니 "어떤 역할을 해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며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부터 털어놓는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의 순수남에서 22일 개봉한 영화 '피끓는 청춘'의 소년 카사노바 중길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한 것 역시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변신 처음('싸움왕' 앞에서는 지질하지만 여학생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폼는데만 어설 없는 중길 역을 맡는다고 했을 때 "'너목들' 여운을 남겨두고 멋있는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갈망이 커서 선택했다. 다행히 영화 완성 후 주변에서 "잘됐다"는 말을 많이 해줬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조금 더 과감히 했으면 웃겼을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몸을 사린 것 같다. 팬티 입고 춤추는 장면 촬영도 창피해서 빨리 끝냈다.

카사노바 중길의 연기 포인트는 애정결핍 지질이다. 어떻게 하면 지질해도 귀여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물론 실제로는 중길처럼 못 한다. 직업이 연예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웃음) 다만 중길처럼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비슷한 것 같다. 애정 표현을 즉각즉각 하는 스타일이라 스태프들이 나보고 애교가 많다고 했다. '너목들'에서 호흡을 맞춘 (이)보영 누나는 이런 게 애정결핍이라더라.

촌티 (모델 출신이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촌스러운 역할에 걸맞게 자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얼굴도 못생기게 나와서 외모로 잘 보이겠다는 생각은 포기했다. 촬영하면서 거울도 안 보고 어떤 때는 눈곱 낀 채로 했다. 충청도 사투리는 처음 해봤는데 평소 말이 느려서 그런지 입에 착착 붙더라. 다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으니 지켜봐달라.

첫사랑 극중 일진 영숙(박보영)은 중길에게 첫사랑이다. 나도 중길처럼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 학창 시절 함께 성장했고 스무 살 넘어서까지 만났다. 똑똑하고 하얀 친구였다. 이상형은 나한테 집착해주는 여자다. 아직 어 같아서 그런 것 같다. 연애할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대세 대세라는 수식어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감사하지만 썩 좋은 호칭만은 아니다. 요즘엔 매력 있는 20대 배우들이 많아져서 늘 나는 어떤 경쟁력을 쌓아야 할까 고민한다. 물론 나도 야망이 있다. 대세 배우로 불리지만 그냥 배우로 불리는 게 목표다. 비록 지금 램보는 스타로 가고 있고 아직 연기도 못하지만 내 단점을 다음 작품에서는 꼭 고치려고 노력한다. 참, 얼마 전 부산에서 길을 지나다 혼자 관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올해가 운이 더 좋다고 하더라.

흥행 지난해 KBS2 '학교'로 시작해 총 다섯 작품을 찍었다. '노브레싱'은 흥행이 되지 않을 걸 직감했고 '관상'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다면 '너목들'은 너무 좋았던 작품이다. '피끓는 청춘'은 새삼 높아진 인기를 확인해주는 영화랄까. (웃음) 그러다 앞으로 다작은 못 할 것 같다. 데뷔 후부터 겹치기를 많이 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이젠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엔 너무 욕심이 많았다.

자기작 분명한 것은 그동안 주로 했던 교복 입는 역할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누아르 장르 같은 남자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새는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와 배역의 선택 폭이 넓어져 행복하다. 그래도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을 맞춰서 작품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고민이다. 또 이전엔 연기는 느끼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혼자 했는데, 이젠 체계적인 수업을 받아서 해보려고 한다.

/박진영기자 toki4027@metroseoul.co.kr
사진/동성아(라코드커뮤) 디자인/박은지

설 특집으로 방송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김수현 출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왼쪽)와 도둑들

김수현 안방극장 '흥행킹'

출연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 시청률 1위 올라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결방에도 '김수현 효과'는 여전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BS에서 방송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13.7%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방송된 설 특집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이다.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별그대'가 결방된 자리에 김수현·박기웅·이현우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방영돼 김수현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다만 '별그대' 13회 시청률에 비해 11.7%포인트 하락했지만 동시간대 드라마를 제치며 김수현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또 명절 연휴 마지막 날 SBS에서 방송된 김수현·전지현 출연의 '도둑들'은 7.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휴 마지막 날 귀성길 대이동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김수현 효과로 분석된다.

반면 명절 특수를 노린 예능 프로그램들은 줄줄이 쓴맛을 봤다.

정규 편성을 겨냥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대거 방영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시청률 재미를 보는 데 실패했다. 명절의 강자로 불리던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 김수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동시간대 방영된 MBC '스타 달은꼴 최강전'은 시청률 8.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달 31일 KBS2에서 방송된 '7번방의 선물'은 12.4%를 기록하며 이날 방송된 설 특집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장유진기자 yyw@metroseoul.co.kr

김형준 솔로 데뷔 3돌 콘서트

8일 연세대 대강당서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형준(사진)이 솔로 데뷔 3주년을 기념해 공연을 개최한다.

2일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형준은 오는 8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히 그의 이야기'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2005년 SS501로 데뷔해 2011년 첫 앨범 '마이 걸'을 발매하며 솔로 활동에 나선 그가 가수로 팬들과 만나는 건 오랜만이다.

그는 지난달 10일부터 '케루-칠레 볼리비아' 등을 돌며 남미 투어 콘서트를 펼쳤지만 국내에서는 드라마 자체 발광 그녀' '그대를 사랑합니다' '금나와라 뚝딱'에 이어 현재 출연 중인 KBS1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까지 연기자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날 공연에는 SS501의 멤버였던 박정민이 참여해 김형준과 새로운 듀엣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MBC 일일극 '오로라공주'에 출연한 배우 서하준이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장유진기자

소유-정기고 듀엣 결성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 소유(사진 왼쪽)가 힙합보컬 정기고(오른쪽)와 프로젝트 듀엣을 결성했다.

2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유와 정기고가 프로젝트 듀엣을 결성해 '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썸'은 콘셉트 참여가성으로 노래 부르는 창법으로 주목받은 정기고 특유의 보컬에 소유의 음색이 어우러지는 미디엄 템포의 듀엣곡이다. 정기고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독립음반 레이블 스타쉽엑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싱글이다.

정기고는 2002년 남성 힙합듀오 I.F의 리스펙트 유' 피처링으로 데뷔한 뒤 소울 다이브·이루펀트·에픽하이·매드클라운·도끼·더 콰이엇 등과 작업했다. 2012년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노래 부문 최우수 R&B 소울상을 수상했다.

스타쉽엑스는 '썸'에 앞서 또 다른 프로젝트 듀엣곡인 소유와 매드클라운의 '착해빠졌어'를 선보인 바 있다. '썸'은 오는 7일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유진기자

엠씨더맥스 10년만에 월간차트 1위

그룹 엠씨더맥스(사진)가 10년 만에 월간 음악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엠씨더맥스 7집 타이틀곡 '그대가 분다'는 지난 1일 온라인 음악 사이트 멜론이 발표한 1월 월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음원 강자로서의 면모를 입증한 것이다. 엠씨더맥스의 월간차트 1위는 2004년 1월 정규 2집 타이틀곡 '사랑의 시'에 이어 10년 만의 쾌거다.

지난달 1일 7집 '언제일랑'을 발매하고 앨범 전곡을 차트 줄 세우기 한 엠씨더맥스는 발매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은 인기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1위는 특별한 방송 활동 없이 오로지 음악만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에서는 엠씨더맥스를 볼 수 없지만 콘서트를 통해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다음달 15일 KBS 부산홀, 3월 29일 대구 경북대 대강당, 4월 12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7집 발매 기념 콘서트 '그대가 분다'를 개최한다.

/장유진기자

'팝칼럼니스트 1호' 서병후씨 별세

국내 1호 팝칼럼니스트인 서병후(사진)씨가 1일 오후 4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유명 래퍼 타이거JK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고인은 1967년 최초의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했었다. 1981년부터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3년 동안 맡았고,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타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은 고인은 은퇴 후에도 트위터 등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손자인 서조단의 이름을 따 트위터 아이디를 '조단이 할아버지'로 짓는 등 아들 부부와 손자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타이거JK는 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아 지난해 '살자'를 발표한 바 있다. 타이거JK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떠났다. 그는 삶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이다. /유순호기자

2월 11일 첫방송 /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크레용팝·김장훈 뭉쳤다

소방관 응원가 '히어로' 뮤직비디오 공개

차세대 글로벌 스타 크레용팝(사진)이 김장훈과 함께 진행한 '대한민국 소방관 프로젝트'의 주제곡 '히어로'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곡으로, 뮤직비디오는 1일 크레용팝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 공개됐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크레용팝은 깔끔한 흰색 배경 앞에서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을 생각나게 하는 빨간색 의상을 입은 채 귀엽고 생기발랄한 안무를 보여줬다.

김장훈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크레용팝과 함께 스파이더맨 거미줄 댄스를 완벽히 소화해 눈길을 끈다.

'히어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을 영웅에 비유해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크레용팝 소속사 관계자는 "'히어로'는 김장훈의 허스키하며 파워풀한 음색과 크레용팝의 귀엽고 명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응원곡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안무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히어로' 음원은 5일 발표되며 음원 수익금은 소방관 유가족 및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체육돌' 이민혁 ★ 찜!

스타 등용문 프로그램 '아육대'서 금 3개·은 1개 MVP 선정

그룹 비투비의 이민혁(사진)이 '아육대' 출신 차세대 스타 자리를 예약했다.

이민혁은 지난달 30~31일 설 특집으로 방송된 MBC '아이돌스타 육상 양궁·풋살 컬링 선수권대회'(이하 '아육대')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거는 독보적인 활약으로 MVP에 선정됐다.

가장 화제가 된 종목은 높이뛰기로 자신의 키(173㎝)보다 10㎝ 이상 높은 185㎝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량을 보였다. 틴탑의 니엘이 보유한 대회 신기록(173㎝)을 일찌감치 깼고 183㎝를 넘어 빅스타의 성학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기록 경신을 위한 보너스 도약에서는 경기장에 모인 다른 가수의 팬들과 운영위원, 진행자들까지 그를 응원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또 풋살 경기에서 빼어난 스피드와 발재간으로 팀의 우승을 견인했고, 남자 60m 달리기에서는 총알 같은 속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남녀 혼성 4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추석 특집 때 높이뛰기 금메달, 100m 은메달, 400m 계주 동메달로 두각을 나타냈던 이민혁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받은 왼쪽 무릎 인대 수술 후유증에도 독보적인 활약을 펼쳐 '체육돌'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아육대'는 스타 등용문으로 주목받아왔다. 2AM의 조권이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고, 씨스타는 보라의 맹활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최대 수혜자다.

데뷔 3년째를 맞는 비투비 역시 이달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이민혁의 활약으로 잔뜩 조명을 받고 있다.

작사와 랩 메이킹에서 재능을 보여온 이민혁은 앞서 KBS2 '출발 드림팀' 5관왕과 왕중왕전 우승, 맨즈헬스 표지모델 발탁 등으로 뛰어난 운동 능력도 보여준 바 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사진 제공/ 맨즈헬스

인순이 최성수 부인 상대 승소

가수 인순이(사진)가 최성수 부인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인순이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와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남보르 사용했다"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바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illegible]기자

주말극 왕좌 지킨 '왕가네 식구들'

배우 오현경과 김희정의 활약을 앞세워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사진)이 설 연휴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1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 45회 방송분에서는 드디어 마주하게 된 수박(오현경)과 순정(김희정)의 팽팽한 접전이 그려졌다. 덕분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왕가네 식구들'은 주요 시청층인 40~50대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었지만 주말극 왕좌 자리를 지켰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은 전국 시청률 39.3%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방송분(46.7%)보다 7.4%포인트 떨어진 수치지만 안방극장 1위를 수성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KBS1 '정도전'은 12.6%, MBC '사랑해서 남주나'와 '황금 무지개'는 13.6%,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12.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illegible]기자

100억 넘는 빌딩 부자 연예인 7명

이수만 190억원 1위

'한류 열풍'에 힘입어 100억원 이상 빌딩 부자 대열에 국내 연예인 7명이 포함됐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국내 유명 연예인 36명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42개 빌딩의 기준시가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기준시가 기준 100억원 이상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은 이수만(사진)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은 압구정동에 190억9000만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해 1위에 올랐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서태지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서태지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102억1000만원), 종로구 소재 빌딩(58억3000만원) 등 총 160억4000만원어치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양현석 대표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 빌딩(34억8000만원)과 서교동 소재 빌딩(118억7000만원) 등 총 153억5000만원 규모 빌딩을 갖고 있다.

가수 비가 청담동 소재 빌딩(87억4000만원)과 신사동 소재 빌딩(34억1000만원)을 합쳐 121억5000만원으로 4위에 올랐고, 권상우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세운 빌딩(114억4000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송승헌 소유 잠원동 소재 빌딩은 112억2000만원으로 6위였고, 전지현은 논현동 소재 빌딩(70억7000만원)과 지난해 사들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빌딩(31억6000만원) 등 총 102억3000만원 규모 빌딩 부자로 7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연예계에 고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연예계에서 임대 수입 등 안정적 수입을 위한 빌딩 투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솔직하고 짜릿한 40대 언니들의 반란

film review
정혜은 기자 hongji@metroseoul.co.kr

■관능의 법칙

세 여자들의 이야기 성·삶 균형있게 다뤄

미나 능력 있는 케이블 TV 예능국 PD 신혜. 이제 사랑이 지겨울 법도 한 신혜에게 얼굴도, 몸도 착한 28세 연하남이 끊임없이 대시한다. 또, 남편에게 당당하게 일주일에 세 번의 성생활을 요구하는 솔직한 주부 미연. 즐거운 섹스를 위해서라면 각종 운동에 수술까지 마다지 않는 미연을 남편은 감당할 수가 없다. 셋. 장성한 딸이 있는데도 주책(?) 맞게 연애하는 싱글맘 해영. 그는 또래의 중년 애인과 같이 살고 싶어 딸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한다.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관능의 법칙'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발칙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답게 초반부터 화끈한 노출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저 야한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찰나 노련한 연출과 솔직한 대사, 공감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며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싱글즈', '뜨거운 것이 좋아' 등을 연출한 권칠인 감독은 따뜻한 색채와 공간을 사용하고 세 주인공의 우정을 예쁘게 그려내 한 편의 사랑스러운 영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노련한 연출로 40대 여성의 섹스와 삶의 균형을 맞춘다.

세 여배우들의 단단한 연기 또한 이 작품을 지탱하는 힘이다. 노출 연기가 부담스러울 만한데도 세 배우는 과감하게 각자 다른 매력을 발산해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이 영화를 그냥 야한 영화가 아니라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발칙한 대사와 공감 가는 서사의 힘이다. 독특한 대사나 허를 찌르는 표현들이 나오면 웃음을 참기 어렵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연애와 현실 이야기가 펼쳐지면 영화에 빠져들게 된다. 제1회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공모대전 대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다.

그러나 세 주인공의 이야기가 모두 매력적인 건 아니다. 신혜의 이야기는 다른 작품과 비슷한 연상녀 연하남의 클리셰를 반복해 지루한 느낌이 든다. 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연심과 현실의 무게 쪽으로 서사가 옮겨지는 것도 매끄럽지 못하다. 영화 초반 견고하게 맞물리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겉돌기도 한다.

그래도 이 영화는 서로 다른 세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과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에 30~40대 여성 관객이 공감을 느낄 만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겨울왕국' 신기록 어디까지…

개봉 17일만에 544만 돌파…역대 국내 개봉 애니 최고

영화 '겨울왕국'(사진)이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개봉 17일째인 전날까지 544만 명의 관객을 모아 '쿵푸팬더 2'를 제치고 국내 개봉된 애니메이션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쿵푸팬더 2'는 2011년 개봉해 506만 명을 동원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9일 만에 200만, 11일 만에 300만 관객을 모은 '겨울왕국'은 역대 애니메이션 중 최단기간 500만 명 돌파와 최장기간 전체 박스오피스 및 예매율 1위 기록도 갈아치웠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OST 앨범 '프로즌'도 함께 인기다. 타이틀곡 '렛 잇 고'는 인기 가요들을 제치고 각종 실시간 차트와 벅스뮤직 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겨울왕국'은 얼지 않는 마법을 지닌 언니와 밝고 용감한 동생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소만간 '레미제라블'이 보유한 뮤지컬 영화 최고 흥행 기록(591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셉션'(583만 명)을 제치고 외화 박스오피스 10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

'수상한 그녀' 하루 65만명이 봤다

설 연휴 최다 관객…일일 박스오피스 1위 등극

영화 '수상한 그녀'(사진)가 설 연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수상한 그녀'는 1일 65만2513명을 동원하며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7번방의 선물'(62만9026명), '겨울왕국'(62만6955명), '베를린'(54만2254명)을 넘어선 역대 설 연휴 하루 최다 관객 기록이다.

줄곧 '겨울왕국'에 밀려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렀던 '수상한 그녀'는 개봉 열흘 만인 지난달 31일 처음 정상에 오르며 강한 흥행 뒷심을 보이고 있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불러모았고 7일 만에 200만, 11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7번방의 선물'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6일 만에 200만, 10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속도를 낸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며 "300만 명 돌파 시점은 휴먼코미디 흥행작인 '과속스캔들', '써니', '늑대소년'보다 무려 열흘 이상 앞선 초고속 흥행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타이타닉'급 감동주는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20일 개봉, 사진)이 30초 예고편으로 웅장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로마제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인 폼페이의 전경에서 시작하는 30초 예고편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 "영원히 사라진 도시, 전설이 된 사랑이 깨어난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할 수 없는 대재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두 남녀의 애절한 모습이 '타이타닉'에 버금가는 감동을 예고한다.

특히 '폼페이'의 러브스토리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이후 2000여 년 만에 발굴돼 전 세계에 충격과 슬픔을 안긴 연인 화석에서 모티브를 얻어 더욱 애틋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실미도' 제친 '변호인' 한국영화 흥행 8위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사진)이 2일 누적 관객 수 1111만4862명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8위에 올랐다.

이 관객 수는 1108만1000명의 관객을 동원한 '실미도'를 넘어선 것으로 '괴물', '도둑들',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해운대'의 뒤를 잇는 수치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9일 개봉한 후 45일 만에 11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변호인'이 누적 관객 1362만 명의 '아바타'를 꺾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인 기자

닮은 욕망

임경선의 모놀로그

생일을 맞이해서 스스로에게 새옷이라도 사줄까 싶어 설 연휴 동안 인터넷 쇼핑으로 10시간 정도를 소모했다. 소모라고 하는 이유는 팔목과 눈이 아픈데 정작 아무런 물건도 못 샀기 때문이다. 아래저래 요새 살이 빠져있어 그런가 싶었지만 실제 사고 싶은 것이 없었다.

마음에 좀 든다 싶으면 대개 'st'라는 알파벳 글자가 붙어있었다. 이것은 시중에 있는 명품 브랜드 제품 스타일을 카피했음을 의미하는 '스타일(style)'의 약자다. 소소한 디테일을 제외하곤 감쪽같이 카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짜깁이면 그런 제품들에 혹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일도 유쾌하진 않았다. 진품을 입는 이들이 내 것이 짝퉁임을 알아차릴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품 세계에 턱걸이하려 하는 무리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본 이상 백화점 가서 제 돈 주고 옷 사 입기도 망설여진다. 브랜드 마케팅 비용으로 값이 비싸게 책정돼 있기도 하지만 웬만큼 예쁜 옷은 온라인 세계에 이미 죄다 'st' 딱지가 붙어 널려있기 때문이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진품을 끝내 사내는 결기도 없다. 남편이 몇 번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명품 가방을 사줄까 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듯한 멘트를 호탕하게 날릴 적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소심보다도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봤자 거추장스럽고 내가 가진 옷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나에게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었기 때문이다. 타협안으로 명품 아웃렛이라는 수도 있지만 다 팔고 남은 '여전히 비싸고 안 예쁜' 것들에 열을 올리는 것도 허탈했다. 그럼 패스트 패션은? 몇 번 입고 빨면 옷이 망가지고 디자인은 너무 유행을 타기에 곧 영혼없는 소비만 되풀이하게 만든다. 패션 사업은 그렇게 양갈래로 기업화·거대화되어 각자의 공식대로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라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욕망을 이용한다. 그러니 모든 여자들이 반드시 닮은 방식으로 욕망하진 않는다. /칼럼니스트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9			7		
						5	6	
	8		4	3				
4	3	5			8			
		9			2		3	
	1		8	5			4	
2		8		6	1			
	5			4			7	

					1			
			7	6	8		9	3
			9			8		
	4	6						5
	9				4		6	
5	8			3				2
		4						7
	2			1				8
	5		8		3	4	2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뉴스 / 슈퍼스도쿠 마스터 (개블러 미디어 리미티드 제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남매 둔 남자와의 재혼 어떨지 혼자 속썩지 말고 하반기 결정

달봉사랑 여자 67년 3월 12일 양력 오후 12시30분

Q 혼자 된 지 10년인데 사별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남자에게 남매가 있는데 잘모가 길렀다고 합니다. 재혼해도 애들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A 남자분 태어난 날에 형살이 가미돼 처궁에 우환을 미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된 것 같았으나 괴강살로 성정이 강하고 주체성은 남매였기에 늘 자식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자식궁에 천을귀인을 두었으니 자손에게 연연하는 것입니다. 재혼을 결심한다면 각자 주변의 가족 관계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에서 전처 자식을 귀히가 포용할 수 있는 길한 운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남자분은 재혼 의사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혼자 애태우지 말고 2014년 하반기까지 교제하다 7월 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식 후회 안할까요 서로 합을 이루니 갈등 안생겨

미남2 남자 72년 음력 12월 20일 오전 9~11시
여자 80년 음력 4월 13일 오후 3~5시

Q 지인 소개로 여자를 만나 사귄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했고 지금 사귀는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궁합이 궁금합니다. 또 실패할까 두려워 생각이 많습니다.

A 극과 극을 오가니 자존심의 기운이 강하고 독선적일 수 있는데 서쪽의 별과 같이 고독하고 외롭게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밀고 나가는 적극적인 성격에 완벽주의자 스타일로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되니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키우는 쪽을 택하도록 하세요. 부모궁에 흉살로 덕이 없어 초년에 고생했는데 관의 계통으로 진출했다고 봅니다. 여자분은 사상이 건전하고 외관이 단정하며 두뇌도 총명합니다.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이 있는 길신)이 서로 갖고 있어 상부상조할 것이며 사주의 천간과 지지에서 서로 생(生)해주거나 합을 이루니 크게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양력 8월에 누구와도 다투지 마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의뜸어 헬 일 자초하지 마라. 60년생 원하던 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 72년생 못마땅하더라도 동료는 흔들지 마라. 84년생 어려운 고비 무난히 넘긴다.

소 49년생 집안에 행복 바이러스 퍼진다. 61년생 배우자의 무언의 압력에 힘든 하루 될 듯. 73년생 자영업자는 큰 이익 생긴다. 85년생 애정 표현 남발하면 손해.

호랑이 50년생 시끄러워서 만나지 마라. 62년생 구직자는 원하던 자리 얻는다. 74년생 직장인은 결정적인 한방 터뜨린다. 86년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없다.

토끼 51년생 약점 숨기면 손해 본다. 63년생 혼자 눈비 맞는 대나무 형국. 75년생 잘나간다고 허세 부리다간 큰코다친다. 87년생 자긍심 생길 경사 생겨 사기 충천.

용 52년생 위험한 요소 제거하는 데 신경 써라. 64년생 꿈꿔온 일은 희망의 싹 틔운다. 76년생 달콤한 말에 솔깃하지 마라. 88년생 생각이 건전하면 결과도 좋다.

뱀 53년생 잔잔 갈등은 해소된다. 65년생 그릇된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77년생 직장인은 아이디어 끌어올릴 성과 얻게 된다. 89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여라.

말 42년생 부질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54년생 예상한 곳에서 이익 생긴다. 66년생 운기 좋으니 적극 움직여라. 78년생 부모에게 의지하면 얻는 게 많다.

양 43년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55년생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니 참아라. 67년생 자녀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다. 79년생 감골 허이지는 득보다 실 많다.

원숭이 44년생 험상도 지나치면 벽. 56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68년생 현실성 없는 일은 손에 보더라도 포기할 것. 80년생 귀인을 만나 여망 키운다.

닭 45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57년생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한 가지에 집중할 것. 69년생 재수가 완성해 거침이 없다. 81년생 술자리에서 실수 않도록 조심.

개 46년생 외출할 때 문단속 신경 써라. 58년생 문서 일 성사되기 좋은 날. 70년생 행운의 숫자는 3과 7이니 참조할 것. 82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 해결된다.

돼지 4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9년생 자영업자는 돈이 들고남이 왕성한 날이다. 71년생 때를 아는 게 좋을 때도 있다. 83년생 진흙 속 진주의 화려한 외출.

홍명보호 또 골가뭄…믿을 건 유럽파?

멕시코 이어 미국에 연속 무득점 패배 · 선수 전원소집되는 그리스전 관심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카슨의 스텁헙 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선제골을 허용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가 졸전 끝에 미국에 무릎을 꿇었다. 결국 국내파와 해외파가 전원 소집되는 그리스전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카슨의 스텁헙 센터에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크리스 원더로프스키에게 2골을 허용하며 0-2로 패했다.

이날 홍 감독은 베스트 멤버를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최전방에 '장신 골잡이' 김신욱(울산)을 세운 가운데 2선에 김민우(사간도스)와 이근호(상주), 고요한(서울)을 배치했다.

중원은 박종우(부산)와 이호(상주)가 맡았고 포백은 김진수(니가타)·김기희(전북)·김주영(서울)·이용(울산)이 투입됐다. 지난 두 경기에서 김승규(울산)가 골키퍼 장갑을 꼈지만 이날은 정성룡(수원)이 선발로 나섰다.

그러나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축구대표팀만으로 연패를 끊기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타리카에 1-0으로 이긴 대표팀은 이후 멕시코(0-4 패)와 미국에 연달아 패하고 말았다.

홍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선수들은 지쳐있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결과는 졌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감독인 저를 비난하면 될 것"이라며 "선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 몫은 제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내파 선수들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다음달 6일 그리스전에는 월드컵에 나갈 전에 멤버를 투입할 생각이다. 그때는 유럽파들도 전원 소집한다"며 "그리스전은 월드컵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 실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겠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3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한편 홍 감독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며칠 더 머무른 뒤 유럽파 태극전사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위해 유럽행 출장길에 나선다. 홍 감독은 최근 팀을 옮긴 구자철과 박주호(이상 마인츠),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박주영(왓포드)을 비롯해 병참악 중인 기성용(선덜랜드) 등의 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표팀 복귀 불가 선언을 한 박지성(에인트호번)도 만나 '복귀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기자 ysw@metroseoul.co.kr

소치 조직위가 뽑은 우승후보 김연아·이상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 등이 눈여겨봐야 할 우승 후보로 선정됐다.

2일 대회 조직위원회 정보 시스템인 '인포(Info) 2014'에는 주요 출전 선수 시리즈를 통해 눈여겨봐야 할 우승 후보에 김연아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로서 마지막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빙속 질주'를 펼친 이상화는 여자 단거리 선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 남자 500m 2연패를 노리는 모태범은 미첼 뮬더(네덜란드)와 함께 이 종목의 강자로 꼽혔다.

반면 한국의 전통적인 메달밭인 쇼트트랙에서는 올 시즌 월드컵 랭킹에서 500m 1위, 1000m 2위, 1500m 3위에 오른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이름을 올렸다. 또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는 2013~2014시즌에 인터내셔널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성훈기자

'오승환 타격·이대호 밀어치기' 日 언론 집중조명

마무리투수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 왼쪽)과 거포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오른쪽)가 스프링캠프 첫날 타격으로 일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산케이스포츠는 2일 고교 졸업 후 9년 만에 방망이를 잡은 오승환의 타격 훈련 장면에 대해 보도했다. 한신이 속한 센트럴리그에는 지명타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승환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타격 연습을 시작했다.

오승환은 "공이 빨라 잘 보이지 않았다"는 소감과 달리 30분간 기계에서 나오는 공을 때려 직선타성으로 날리는 등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였다. 오승환은 투수 수비 훈련에서도 기본기에 대해 합격점을 받았다.

또 다른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닛폰지는 이대호의 '밀어치기'를 다뤘다.

이대호는 스프링캠프 첫날 타격 훈련에서 58차례 스윙해 51차례나 중견수 우측으로 타구를 날렸다. 훈련은 치지 못했으니 밀어치기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코치와 출신 오 사다하루 소프트뱅크 구단 회장은 "다른 팀에서 이적한 선수 중 간혹 연습 타격 때 힘을 주는 일도 있지만 이대호는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안다"며 이대호에게 믿음을 보였다.

/정혜련기자 hye@

기성용(25·가운데)이 1일 잉글랜드 뉴캐슬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타인 위어 더비에서 승리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박주호 데뷔골·구자철 쐐기골·기성용 풀타임…

해외파 날았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마인츠가 코리안 듀오 박주호(27)와 구자철(25)의 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

박주호는 1일 독일 마인츠의 코파세아레나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2013~2014 분데스리가 19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4분 선제골이자 독일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다. 박주호는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크리스토프 모리츠가 가운데 빈 공간으로 내준 패스를 왼발 감아 연결했다. 공은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골키퍼 키를 넘어 골로 이어졌다.

후반에는 13분 교체 투입된 구자철의 쐐기골이 터져나왔다. 구자철은 후반 41분 프라리 심행에서 요하네스 가이스의 패스를 받아 골대 정면에서 왼발 슛을 날려 왼쪽 골망을 흔들었다.

다른 유럽파 태극전사들은 이날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소속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부진에 빠진 축구대표팀에 희망을 걸게 했다.

손흥민(22·레버쿠젠)은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75분을 소화했다. 레버쿠젠은 슈투트가르트를 2-1로 꺾었다.

지동원(23·아우크스부르크)은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3-1로 앞선 후반 24분 최전방 공격수로 교체돼 상대의 옐로카드 반칙을 유도하는 등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기성용(25·선덜랜드)은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풀타임 활약을 하며 팀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다.

/정순호기자 suno@

조제 알도 6차 방어 성공

종합격투기대회 UFC 169에서 조제 알도(27·브라질·사진 왼쪽)가 리카르도 라미스(31·미국)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2일 오전 펼쳐진 UFC 169에서 페더급 타이틀을 놓고 알도가 라마스를 상대로 나려와 그라운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공격을 펼치며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알도는 1~4라운드 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라마스는 5라운드 저돌적인 공격력으로 조제 알도를 몰아붙였지만 끝내 무릎을 꿇었다.

한편 알도는 지난해 8월 UFC 163에서 한국의 정찬성을 4라운드에 TKO로 제압한 바 있다.

/정성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팀	1Q	2Q	3Q	4Q	합계
동부	21	15	11	18	65
KT	17	26	18	16	77
KCC	14	15	16	17	62
오리온스	21	18	19	17	75
인삼공사	16	15	27	25	83
전자랜드	12	19	25	21	77
삼성생명	10	17	22	13	62
국민은행	21	12	17	24	74

프로배구 전적 (2일)

현대캐피탈	3	0	대한항공
기업은행	3	0	흥국생명